

남원시, 폭염 대응체계 강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추진

남원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건강 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는 5월 15일부터 남원 의료원과 협력하여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 질병관리청 등 폭염특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 안전재난과 폭염 TF팀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 방문보건팀, 보건지(진료)소 방문사업인력 50명으로 방문 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 오는 9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어부 △거동 가능 어부 △질환유무 등 분류를 통해 집중 관리 대상 3,000여명을 선별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자로 대상자의 안부 확인 및 건강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 이 과정에서 건강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119 및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



남원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건강 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 대비 6대 행동요령으로는 △TV,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 확인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활동 자제 △주변 안부 살피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양산, 쿨토시, 모자 이

용 신체노출 최소화 등이 있으며,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출출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돈 버는 농업' 실현 박차

고령 영세농 버 농작업비 지원

순창군이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버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돈 버는 농업'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

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버 재배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당 115원을 지급해 최대 5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농작업 대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 임실서 개최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양궁협회가 주관하는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6일간 임실 오수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 양궁의 미래를 책임질 전국 중·고등부 선수들이 참가, 선수와 임실 등 700여 명이 참여한다.

경기종목은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참가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전국 단위의 경쟁을 경험하며, 양궁 기술 향상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실 군수는 "이번 화랑기 양궁대회를 통해 임실군이 양궁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다"며 "전지훈련센터 완공과 함께 지역 체육 인프라가 크게 강화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양궁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4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이·통장 및 주요 사회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경식 남원시장, 순회 간담회

22일까지 23개 읍·면·동 방문해 이·통장·사회단체장들과 논의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4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이·통장 및 주요 사회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소규모로 열리며, 이·통장을 비롯해 발전협의회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민생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이 간담회를 통해 춘향제를 비롯한 주요 시정 활동에 적극 협력을 해 준 이·통장 및 사회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 회의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전달되지 못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간담회는 하루 2차례를 기본으로 하되 읍면동 상황에 따라 세 차례로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건의사항 청취 및 참석자들과의 소통 등으로 약 75분 내외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순회 간담회를 통해 농업 기반 시설 개선, 고령자 복지 확대, 마을 안전 강화,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장애인 이용 가능 개방화장실 전수조사

남원시가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장애인 이용 가능 개방화장실 59개소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시 언제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가 있는 시민과 관광객이 외부 활동 시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을 찾을 시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서 7월 2일까지 관공서, 공공시설, 지정 개방화장실 5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 59개소 중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은 총 55개소로, 이 중 24시간 이용 가능 화장실은 15개소, 업무시간 내 이용이 가능한 곳은 44개소인 것



로 확인되었으며, 정보는 시 대표 누리집(<https://www.nam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욱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로 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필요한 때 바로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여름철 산행 안전수칙 준수 당부

순창소방서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군민들의 여름철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산행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탈수와 열사병, 미끄러짐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동반되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체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특히 최근 전북 지역에서도 열사병 증세로 인해 산행 도중 긴급 구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순창소방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통풍이 잘 되는 복장 착용 △모자와 선크림 사용 △체력에 맞는 무리 없는 산행 코스 선택 △응급처치용품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필수 안전수칙으로 강조했다. 또한 등산 중 위급상황 발생 시 119로 즉시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위치 확인 및 동행 산행도 권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순창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2025년 국공·자양·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마쳤으며, 바쁜 영농철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상주하며,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은 고령자나 다문화 이주여성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창군 민원 안내 만화'를 제작했으며, 이를 우편과 문자(SMS)를 통해 발송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